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⑬

愚人不信 見墮黑暗地獄中
우인불신 견타흑암지옥중
不覺不知 只緣業重故
불각부지 지연업중고
所以不信 譬如無目人
소이불신 비여무목인
不信道日有光明
불신도일유광명
縱向伊說 亦不信 只緣盲故
종향이설 역불신 지연맹고
憑何辨得日光 愚人亦復如是
빙하변득일광 우인역부여시
見今墮畜生雜類 誕在貧窮下賤
견금타축생잡류 탄재빈궁하천
求生不得 求死不得 雖受是苦
구생부득 구사부득 수수시고
直問着 亦言我今快樂
직문착 역언아금쾌락
不異天堂 故知一切衆生
불이천당 고지일체중생
生處爲樂 亦不覺不知
생처위락 역불각부지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 흑암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데 이는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다. 마치 소경이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과 같으니, 설사 그에게 말해주어도 역시 믿지 않는다.

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머리와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고, 속인도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견성하지 못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속인은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음욕을 없애지 못하는데 어찌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까."

答曰 只言見性 不言狀慾
답왈 지언견성 불어음욕
但得見性 狀慾本來空寂
단득견성 음욕본래공적
不假斷除 亦不樂着 縱有除習
불가단제 역불락착 종유제습
不能爲害 何以故 性本淸淨故
불능위해 하이고 성본청정고
雖處在五蘊色身中 其性本來淸淨
수처재오온색신중 기성본래청정
染污不得 法身本來無受
염오부득 법신본래무수
無飢無渴 無寒熱
무기무갈 무한열
無病 無恩愛 無眷屬
무병 무은애 무권속
無苦樂 無好惡 無長短
무고락 무호오 무장단
無強弱 本來無有一物可得
무강약 본래무유일물가득
只緣有此色身 卽有飢渴寒
지연유차색신 즉유기갈한
熱 病等相 若不 卽一任作
열장병등상 약불잠 즉일임작

대답한다. "단지 견성만을 말했지, 음욕은 말하지 않았다. 음욕이란 본래 공적하니 견성만 하면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또 쾌락에 집착하지 않으니 남은 습기가 있다 해도 방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비록 오온의 몸속에 있다 해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물들지 않는다.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어서 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추위도 더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은혜와 사랑도 없고, 권속도 없고, 고락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장단도 없고, 강약도 없어서 본래부터 한 물건도 얻을 수가 없다. 단지 이 몸이 있기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질병 등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니 만약 속지 않으려면 즉시 한번 맡겨보아라.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견성 못하면 머리 깎았다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맹인이 어떻게 햇빛을 분간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지금 축생의 무리에 떨어졌거나 빈궁하고 하천한 무리에 태어나서 살려해도 살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도 직접 물어보면 "나는 지금 즐거운 것이 천당과 다름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은 태어난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역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如斯惡人 只緣業重
여사악인 지연업중
若見自心是佛 不在剃除鬚髮
약견자심시불 부재체제수발
白衣亦是佛 若不見性
백의역시불 약불견성
剃除鬚髮 亦是外道
체제수발 역시외도
問曰 白衣有妻子
문왈 백의유처자
狀慾不除 憑何得成佛
음욕불제 빙하득성불

이런 악인은 업장이 두텁기 때문이

큰 스님과의 대화

법공스님

도안사 조실

비가 간 수락산 자락의 오후는 티끌 하나 없이 청명한 자태를 뽐냈다. 도안사 오르는 길목을 수놓은 벚꽃, 정갈한 나뭇가지들, 그리고 세월을 지켜온 푯말들. 만물의 일상은 그렇게 제 모습을 지켜가며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정치도 정치다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이에게 이런 산사의 일상은 더없는 후련함을 안겨준다.

"길이란 무엇인가?" 불쑥 던져진 질문. "곧고 바른 것을 길이라 하지…." 산사가 청명한 이유는 이것이었던가! 정치가 혼탁한 이유 또한 이런 철학이 없기 때문이었던가!

4 · 13 총선이 끝난 지금 정치현안과 남북문제 등의 난제들을 풀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스님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리고 상생(相生)과 화합의 부처님 정신만 따른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야기 내내 답답한 정치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15년 강백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를 잊지 않았다.

'너'와 '나' 분별하니 싸움판

· 1918년 서울 生
· 35년 봉선사에서 사미계 수지
· 40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서 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 49년 동국대 문리대 졸업
· 49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65년 가평 현능사 주지
· 64~1982년 법주사, 백양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 강사
· 82~1994년 도선사 심달학원 강사
· 현재 도안사에 주석

—정치란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바른 길이 곧 정치입니다. 백성이 잘 살려면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바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로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 말씀에 따라 정치를 한다면 불국토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미물이나 생명이 있는 것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보듬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치관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부처님 사상과는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끝난 국회의원 선거는 몇 가지 숙제와 희망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화두로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지역감정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정치인들에 의해 조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야전인 수격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이용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탐욕과 분노심을 조장하고 스스로가 그것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은 결코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딪힘 속에서 자꾸만 번져가는 오온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지역감정은 우리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암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로를 죽이는 공멸의 길입니다. 실체도 없는 오온에 집착하면 번뇌와 망상만 깊어지는 법인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헐뜯고 대립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自)와 타(他)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심은 정치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자기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아적 발상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일반대중을 자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미물들에게도 자비를 펼쳤습니다. 나 외에 모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요, 지역감정을 없애는 요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투쟁과 반목, 질시가 난무한 상극의 정치만이 존재해 왔습니다. 문제는 늘 그런 행태가 비판받아왔고 그래서 개혁의 목소리도 계속됐지만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이 나라에서 자기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중에 백성은 없는 셈이죠. 이것은 정치의 기반이 대중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가장 무서워해야할 정치인들이 백성을 우습게 아니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여도 부끄럽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상극(相剋)의 정치는 백성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상생(相生)의 원리를 강조하신 것은 모든 만물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입니다. 상생은 화엄 연기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립적인 존재성을 가질 수 없고(無我) 서로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현상은 무수한 인(因)과 연(緣)이 상호관계하여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든 무엇이든 결코 혼자서 이뤄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직 '저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백성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일어날리 없습니다. 제 스승인 박한영 스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도 바로 '화합'입니다. "싸우지 않고 중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란 다름아닌 '남 미워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생의 지혜가 담긴 가르침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무엇이 세상을 유지하고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있으며 어떤 법이 있어 이 세상을 제어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 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하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 '마음'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국민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과 정치인들의 '마음'이 상생의 조화를 이뤄야만 정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 방에 걸려있는 저 글을 보세요. '人 人 人 人' 사람 인(人)자가 모두 넷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깨우쳐주는 글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사람이다'라는 뜻이지요. 모름지기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사람 도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산 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구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허)를 받아서 현대식 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 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 · 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엇, 관절 · 골다공증 · 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임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덕망있는 스님을 모십니다

가락시대부터 비룡산이란 지명으로 지형이 좌청룡, 우백호의 형상을 이루는 천하의 명산, 명당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고적 사찰터로, 최초 공개합니다.

이 성스러운 터에 새천년에 불사를 이르키고자 하시는 덕망있는 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飛龍山

비룡산 귀터 특징

- 소재지는 김해시 생림지역
- 교통은 부산에서 30분, 김해시내에서 15분거리
- 평수는 전체 16,000평(임야), 사찰터 주변 3,000평 분할가능
- 사찰터까지 차 진입가능 / 기존 도로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사찰터 후면은 괴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수백년 수령의 소나무 등 사찰터 전체를 감싸고 있음
- 사찰터 앞면은 낙동강이 흘러 들어오는 형상임
- 비룡산 내에는 여러 개의 토굴이 있음

※새천년 불사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스님께서는 별도 연락을 요망합니다.

■문의 : ☎(051)463-5567~8

김해 비룡산 지주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 여래원 거룡 법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檀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02)3437-8282 ◑